UCB, 벨기에 UV Resin 3만톤 건설

2006년 가동예정 Radcure 브랜드 판매 ... 벨기에 표면처리제 허브로

UCB는 벨기에 225에이커 공장부지에 UV(Ultraviolet) Resin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벨기에가 앞으로 표면 처리제(Surface Specialty) 생산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UV Resin 플랜트가 들어서게 될 벨기에 Mons의 St. Ghislain 부지는 도로 및 철도, 수로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UCB의 Drogenbos 소재 표면 처리제 연구센터와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UCB는 St. Ghislain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표면 처리제사업 성장시기를 향후 20년 내로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 플랜트의 Resin Monomer 생산능력은 총 3만톤에 달하며 UCB의 Radcure 브랜드로 판매될 예정으로 2006년 가동에 들어간다.

또 UCB는 플랜트 확장이 불가능한 유럽 도시 소재 플랜트를 St. Ghislain로 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UCB는 Solutia의 Resin, 첨가제, 접착제 사업을 5억1000만달러에 인수한 후 자사의 화학 및 필름 사업과 합병해 2003년 초 세계적인 표면 처리제 기업을 설립했다. 그중 코팅 Resin 및 첨가제와 Technical Resin 사업이 인수액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필름 및 접착제 사업이 차지했다.

2003년 상반기 표면 처리제 매출액은 수익 3100만유로와 함께 총 7억7300만유로(8억6600만달러)에 달했으며 이후 Radcure 매출규모는 27%까지 증가했다.

한편, Radcure는 UV 및 전자빔 프로세스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며 주 소비분야는 잉크 그래픽 아트 및 보호용 광택제(Overcoat Varnish), 목재 공업용 코팅, 금속, LCD(Liquid Crystal Display) 및 PCB(Printed Circuit Board)와 같은 광전자 등이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1/13>